

제37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개요

- 가. 구 분 : 국립극단 제37차 임시이사회
- 나. 일 시 : 2019.10.14.(월), 11:00~12:00
- 다.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6명 참석 / 감사 참석
- 라. 참 석 자 : 이사장 김상헌, 이사 이성열, 고희경, 이상우, 이재경, 김철호
/ 감사 김혁수
- 마. 간 사 : 사무국장 오현실

2. 보고사항

- 가. 제36차 임시이사회 의결처리 결과
- 나. (재)국립극단 2019년 실적

3. 심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직제규정 개정(안)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 다. 제3호 의안 : (재)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안)

4. 의결결과

- 가.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나.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다. 제3호 의안 : (재)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5. 참고사항

- 가. 제37차 임시이사회 주요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9년 10월 14일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안녕하십니까? 국립극단 제37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분 중 현재 6분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 장 : 이상 보고드릴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보고사항 2건, 심의안건 3건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제3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처리 결과입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36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있으십니까? 요즘도 여전히 이런 이슈에 대하여 신경쓰는 편인가요? 친일 등이요.

이 성 열 : 이슈는 크게 상반된 두 가지 방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

했던 의도는 근대극은 1945년도까지, 전 예술감독님대에는 1930년대부터 50,60년대 까지 포괄하여 진행되었고, 제 임기 내에는 20년대부터 45년 전까지 집중해서 조명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전에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 윤백남, 송영을 작년에 소개했고 금년에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민족의 수난사와 함께 대부분의 40년대 대부분의 작가가 친일성향을 보여주기에 그 양면을 다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문위원단에서 이 작품을 선정할 때에는 간도 등으로 이동하는 40년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당시에 친일적 작품의 실상을 함께 드러내보이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지만 반일정서가 굉장히 비등할 때여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일본 관련 행사나 문화작품 등이 취소될 때였습니다. 작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칫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배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및 저희 극단 직원들, 참여하는 배우 스태프 분들에게 공지와 동의를 얻어서 작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만, 연극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극계는 오히려 이 작품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담론과 같이 대토론회를 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점에 대한 판단은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상 우 : 저도 자문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일극인 이 작품을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고 예술감독님 재임기에 새로운 근현대극을 발굴하여 재조명해보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단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좋은 작품을 선정해보자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작품 <빙화>는 일제말기였고 군국주의 시대였고 전쟁기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국민연극이라고 하여 총독부 관리에 의해 연극이 통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국적인 색채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연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연극은 친일적인 요소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만, 40년대 작품 중 당대 현실의 재현, 작품성 등의 측면에서 이 작품이 좋

은 작품이고 1940년대 연극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작품선정 시기는 한일 무역분쟁 등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라 예측하지 못하였는데 여름에 한일 갈등이 심화되며 이러한 작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나니 연극계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비난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착왜구라는 단어 등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다보니 아무리 선정의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여 예술감독님과 자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지금은 시기가 아니어 접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 장 : 저도 지난 번에 서면으로 보고받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명확히 들었네요.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희 경 : 저는 서면결의에도 반대 의견을 낸 소수입니다. 타이밍이 제일 뜨거울 때라서 정말 여론 상 감정 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35~45년 사이의 연극을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매번 못하고 지나간다면... 사실 이런 건 국립극단이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연을 해봐야 사실은 그로 인해서 ‘친일의 요소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국민연극이, 군국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 만들면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조금은 바뀐 것 같고, 지난 주 연극협회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성 열 : 지난 토요일 이상우 이사님이 계시는 한국연극학회에서 친일연극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우 : 네, 저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 장 : 네, 아쉬움도 있고 당연히 생각할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잘잘못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요즘 이슈가 많아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성 열 :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같은 경우엔 고희경이사님 말씀하신 대부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하지 않겠느냐와 같은 이유이고, 자료는 하버드 엘친도서관에서 자료가 발굴되면서 15년 내에 새로이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의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라 한국희곡전공자들은 아는데 연극 일반인과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들만 알면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등 분분합니다. 반면에, ‘국립에서 하면 잘 만들테니까’ 라며 오히려 그 작품과 작가의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기에 하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흥행도 안되고 일반인의 관심도 없는데 민간에서 할 리가 없기에 국립 아니면 할 곳이 없다. 국립이 해야 한다.’ 라는 두 논리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이 미뤄둔 숙제같은 이슈를 해결해야할 시점이 되면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 경 :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앞으로도 꼭 친일이 아니라도 뭔가 작품과 관련해서 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성 열 : 그럴 수 있죠.

이 상 우 : 이번에 <빙화> 논란이 연극계 일각이 있었는데, 하면 안되는 이유 측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가의 작품은 국립에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치면 과거에 공연했던 <토막>, <호신술>, <산허구리> 등도 해당되어 문제가 됩니다. 극작가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친일을 비롯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언젠가 국립극단에 관련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 경 :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거나 접는 일이 생기면 극단측에서 일종의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성 열 : 하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 작품을 변경한 것은 연극계의 분분한 논의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연극계에서의 논란

을 예상했었기에 거기에 맞춰서 작은 세미나 등을 같이하여 이해를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연극계 논의 보다는 국민 정서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이 작품을 다시 하게 된다면 연극계 논의 때문이 아니라, 원래의 취지대로 그 당시의 생활상과 국민연극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연극계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정서는 일본불매운동 하는 중인데 국민의 세금 사용에 오해를 할까봐입니다.

이 상 우 :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영화도 친일영화가 있는데 한국영상 자료원에 자료공개가 되어 있고 로그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친일영화도 원하면 볼 수 있듯이 친일연극도 1940년대 연극의 실상을 접한다는 의미에서 공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 장 : 네. 이 정도로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번 이사회가 대면회의였고 고이사님처럼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으면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겠습니다. 지난 번 결정 어쨌든 잘 되었고 국립은 더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 덕분에 고민의 깊이는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을 이렇게 접수하고, 두 번째 보고사항은 실적 보고입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5쪽, '국립극단 2019년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 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문없으시면 접수하고 심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이 사 장 : 오늘 심의안건은 총 3가지로 법이 바뀐 것들에 대해, 직제규정, 인사

규정, 복무관리규정에 대해 말씀 주시면 논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8~9쪽, '직제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그러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상 우 : 인건비 1억 5천 증액되면 다른 부분을 줄이시나요?

간 사 : 인건비가 조금 여유 있어서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 장 : 비정규직 21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간 사 : 정부의 기초이기는 합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공기관까지는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관단체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협의할 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확답이 없습니다.

이 사 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나 의의가 없으시면 제 1호 심의안건 직제규정 개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호 심의안건인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안)입니다.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1~12쪽, '인사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제 2호 심의안건 보고받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 재 경 : 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니까, 의의 없습니다.

이 사 장 : 가족돌봄휴직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간 사 : 무급입니다.

이 사 장 : 시행은 바로 하게 되어있네요?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 2호 심의안건 가결하겠습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1~20쪽, '복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함)

이 사 장 :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유급휴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8살 이하 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해야하고, 예방교육을 보다 명시적으로 넣으셨고 복무 관리시스템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시는 내용이네요.

이 상 우 : (육아기 단축시간 근로의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간 사 : 똑같습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 사 장 : 부분근무를 도입하는 개념이네요?

이 재 경 : 이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임금이 감축되기에 두고 봐야겠네요.

이 사 장 :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 3호 안전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과 심의안건과 별도로 토의할 사항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37차 임시이사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현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이성열 (인)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김철호 (인)